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과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장원¹, 장대연^{2*}, 서동현³

¹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²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학전공 조교수, ³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bullying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Jang-Won Choi¹, Daeyeon Jang^{2*}, Donghyun Seo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Management at TongMyo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at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³Ph. D Cours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t Yo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제5차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1,678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9.0을 사용하여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치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토는 Process Macro 4.3 프로그램을 통해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조사대상자는 56.5%로 나타났고, 전체 15.7%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의 문제를 촉발시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사이버불링, 공격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bullying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1,678 people from the 5th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Children and Youth Policy in 2023. Using SPSS 29.0,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measured,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variabl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reviewed using the Bootstrapping technique through the Process Macro 4.3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56.5%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ocial withdrawal, and 15.7% of the total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cyber-bullying. Second, social withdrawal and cyber-bully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bullying, aggression h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internet of things society triggers the problem of cyber-bullying online.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Cyber-bullying, Aggression, Mediating effect

*장대연(daeyeon@hknu.ac.kr)

접수일 2025년 09월 04일

수정일 2025년 10월 01일

심사완료일 2025년 10월 09일

1. 서론

한국은 세계화의 물결 아래 다문화사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체 청소년 인구는 지속 감소추세임에 반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인구는 2015년 1.4%에서 10년이 흐른 2024년 현재 3.8%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이에 따라 어느 학급에서도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고, 이들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 청소년을 외부인으로 판단하거나, 다른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배타성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한다[2]. 그들은 비(非) 다문화 청소년과는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 부족한 한국어 능력, 학습 부진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게 되며,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인식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서 위축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3]. 다문화 청소년은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4].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에 내·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주로 우울이나 공격성, 대인관계 장애와 같은 내재된 문제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 6, 7], 비행이나 폭력,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8, 9].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외부 환경에 대해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의 수준이 높다[10]. 이러한 공격성향은 폭력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높아진 공격성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현 시킬 공산이 높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상황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직접 대면하는 오프라인 공간보다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 상에서 표출하기 쉽기 때문이다[11, 12].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행 행동이 바로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다.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공격성으로 인해 사이버불링 가해를 시도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과 공격성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분석한 연구

만 진행되었을 뿐[13, 14, 15], 사회적 위축에 더욱 취약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및 사회적불링 간의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매개로하여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 청소년 대상 개입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란 사회와의 상호 작용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스스로 행동을 철회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등의 비사회적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16].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을 연구한 정익중[17]은 또래 관계에 있어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립 상태로 정의하였고, 부정적인 심리 기제로 인해 시간과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또래로부터 자신을 홀로 두게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18].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타인을 통해 고립되는 따돌림이나 배척과는 달리, 스스로가 주도적·능동적으로 본인을 고립시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서 생애주기 발달과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19, 20].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비 다문화 청소년과는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학습 부진 등으로 인해 고립과 차별 경험을 가질 확률이 높을 수 있으며,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인식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서 위축되기 쉽다[21, 3].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이 비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해 사회적으로 위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한 문제 행동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2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우울이나 대인관계 장애와 같은 내재된 문제를 발현시키는 한편[5, 6, 7],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외현화된 문제 행동인 비행이나 인터넷

증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8, 9]. Agnew[2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따르면 성장기의 부적인 정서 경험이 이후 폭력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적 정서 자극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자극 해소 또는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대면 공간보다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비행 행동 양상을 보이기 쉬운데[12, 23], 상황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사이버 공간이 타인과의 직접 대면 없이도 공격 행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행 행동은 사이버불링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매체기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에 대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로서[24],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나 영상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25]. 남은정과 배희분의 연구[26]에서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불링을 가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은 스트레스 표출의 창구로 온라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이버불링을 가해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2.3 공격성의 매개효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될 경우, 사이버불링이나 폭력 등과 같은 행위를 표출함에 앞서서 폭력의 대표적 요인인 공격성의 정서 문제가 촉발된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위해를 가하려는 성향을 의미 하며 [27], 공격적인 행동과 동시에 적대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포함한다[28]. 높은 사회적 위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 성향이 높다[10].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 30, 31]. 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폭력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서 사이버불링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33, 34].

앞선 문헌을 종합해 보면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으

로 인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고, 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공격성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로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이라는 정서 문제를 발현해 사이버불링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 및 가정의 배경 특성과 더불어 발달과 성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초기 표본은 총 2,2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표본 이탈이 발생했으나, 연구진은 가중치 적용을 통해 대표성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에 실시된 제5차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시점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였다. 분석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678명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 총 1,678명의 연구 참여자 중 여학생이 873명(52.0%), 남학생이 805명(48.0%)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14세가 1,594명(94.4%)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경인(경기+인천) 지역이 483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부모의 결혼 상태는 '결혼'이 1,593명(94.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108명(6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학력 분포에서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739명(44.0%),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994명(58.3%)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은 어머니 40명(2.4%), 아버지 44명(2.6%)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표본의 특성은 한국의 일반적인 청소년 가구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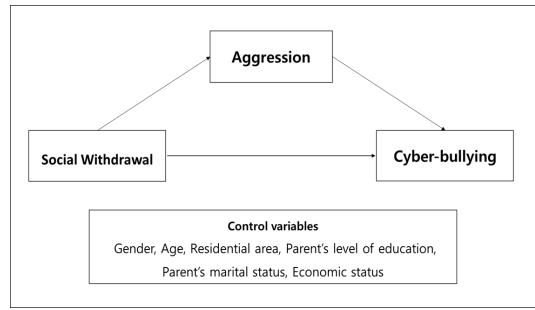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678)

Variables		N(%)
Gender	Female	873(52.0)
	Male	805(48.0)
Age	13	18(1.1)
	14	1584(94.4)
	15	68(4.1)
	16	7(.4)
	17	1(.1)
Residential area	Seoul	174(10.4)
	Incheon, Geonggi	483(28.8)
	Chungcheong, Gangwon	294(17.5)
	Gyeongsang	426(25.4)
	Jeolla, Jeju	301(17.9)
Mother's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504(30.0)
	High school	739(44.0)
	College	175(10.4)
	University	220(13.1)
	Graduate school	40(2.4)
Father's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239(14.3)
	High school	994(59.3)
	College	139(8.3)
	University	261(15.6)
	Graduate school etc.	44(2.6) 1(.1)
Parent's marital status	Conjuality	1593(94.9)
	Divorce	45(2.7)
	Separation	11(.7)
	Bereavement	27(1.6)
	Living together	2(.1)
Economic status	Very hard	62(3.7)
	Hard	399(23.8)
	Normal	1108(66.1)
	Wealthy	103(6.1)
	Very wealthy	6(.4)

3.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design

3.4 측정도구

3.4.1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35]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된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내성적 행동, 대인관계 회피 성향 등의 하위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 3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통해 사회적 위축의 전체적 수준을 파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위축 및 억제된 행동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MAPS 2기 연구에서 사용된 과정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34 이상으로 확인되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4.2 사이버불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년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36]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수정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36] 사이버불링 중사이버비방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 참여자의 사이버불링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사이버불링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불링 및 일탈적 행동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구성된 척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언어적 공격, 개인정보 침해, 불법 정보 유포 등의 다양한 문제 행동을 측정한다. 구체적인 문항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전혀 없다(1점)'부터 '1주일에 여러 번(6점)'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진행되었으며, 총 4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이버불링의 전체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더 빈번하게 비행 또는 일탈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변수 실태의 경우, 전혀 없다(No)와 1회 이상 경험한 경우(Yes)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4.3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35]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된 공격성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성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척도로,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 조절 결여 등 다양한 공격성 표현 양상을 포괄한다. 측정 도구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격성 척도들을 참조하여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된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총 3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통해 공격성의 전체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대인관계 상황에서 공격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더 빈번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77로 보고되어 문항들이 측정 개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공격성 발현 양상과 그 변화 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3.4.4 통제변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 연구[37, 38, 39, 40]에서 주요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정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부모님의 결혼 상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3.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SPSS 29.0을 사용하여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항 간 내적 일관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41].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의 실태

사회적 위축 수준을 측정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가 948명(56.5%)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전체적 위축 정도는 보통 수준에 근접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2.28점(± 0.94)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는 항목이 2.23점(± 0.92)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문항은 2.04점(± 0.8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여전히 중간값(2.5점) 미만으로 관찰되어 응답자 집단의 사회적 위축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Social Withdrawal (N=1,678)

Variable	MEAN	SD	MIN.	MAX.
Social Withdrawal	2.18	.778	1	4
1) I feel awkward when there are many people around me	2.23	.920	1	4
2) It is difficult for me to articulate my opinion to others	2.04	.833	1	4
3) I don't like to be in public	2.28	.943	1	4
			Yes(%)	No(%)
Experience of Social Withdrawal	948(56.5)		730(43.5)	

사이버불링 경험에 대한 실태는 <표 3>과 같다. 응답자 1,678명 중 264명(15.7%)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사이버불링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경험'이 251명(1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체 사이버불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유형의 경험률은 현저히 낮아,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9명(2.3%),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4명(1.5%), '괴롭힘 목적으로 저글물을 올린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7명(1.1%)에 그쳤다. 이 결과는 연구 대상 집단 내에서 사이버불링이 언어적 괴롭힘의 형태로 주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공격의 강도가 높거나 조직적인 불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Table 3> Cyber-bullying (N=1,678)

Variable	Yes(%)	No(%)
Cyber-bullying	264(15.7)	1414(84.3)
1) I've sent curses or harsh words directly to someone	251(14.9)	1427(85.1)
2) I have spread bad rumors or bad words about someone to others	39(2.3)	1639(97.7)
3) I once posted a snipe for the purpose of bullying someone so that many people could see it	17(1.1)	1661(98.9)
4) I've attacked someone on cyber	24(1.5)	1654(98.5)

공격성 수준을 측정한 3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전체적 공격성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1.91점(±0.7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는 항목이 1.82점(±0.76)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는 문항은 1.78점(±0.77)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모든 항목에서 중간값(2.5점) 미만으로 관찰되어 응답자 집단의 공격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Aggression (N=1,678)

Variable	MEAN	SD	MIN.	MAX.
Aggression	1.83	.635	1	4
1) If someone doesn't let me do what I want, I argue or fight	1.91	.754	1	4
2) I often fight over little things	1.82	.763	1	4
3) There are times when I'm angry all day	1.78	.769	1	4

4.2 주요 변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은 사회적 위축과 $r = .381$ ($p < .01$)의 상관계수를 보여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사이버불링과도 $r = .205$ ($p < .01$)로 유의미한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 간의 상관관계는 $r = .049$ ($p < .05$)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그 영향력이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및 사이버불링 경향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밀접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N=1,678)

	1	2	3
Social withdrawal	1		
Cyber-bullying	.049*	1	
Aggression	.381**	.205**	1

4.3 다중회귀분석 검증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의 직접 효과는 <표 6>과 같다.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이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위축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8$, $p < .05$).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beta = -.295$, $p < .0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통제변인(연령, 거주지역, 인터넷 사용시간, 아버지 학력, 부모님 결혼 상태, 가정 경제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Adj R^2 = .012$ 로 나타났다($F = 3.604$, $p < .001$).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이 매개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에 대해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305$, $p < .001$). 통제변인 중에서는 거주지역($\beta = -.132$, $p < .0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보다 중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공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Adj R^2 = .152$ 로 Model 1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F = 38.519$, $p < .001$),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rbullying

	Model 1		
	B	S.E	t
Gender	-.295	.063	-4.675***
Age	.032	.118	.271
Residential area	-.022	.025	-.892
Mother's level of education	-.023	.078	-2.299
Father's level of education	-.015	.077	-.191
Parent's marital status	.157	.146	1.080
Economic status	.024	.051	.471
Social withdrawal	.028	.013	2.091*
Adj R ²	.12		
R ²	.17		
F	3.604***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Model 2		
	B	S.E	t
Gender	-.090	.086	-1.043
Age	.106	.160	.664
Residential area	-.132	.034	-3.926***
Mother's level of education	.110	.106	1.043
Father's level of education	.069	.105	.659
Parent's marital status	-.189	.198	-.953
Economic status	-.080	.069	-1.155
Social withdrawal	.305	.018	16.652***
Adj R ²	.152		
R ²	.156		
F	385.191***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매개변수인 공격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Model 1에서 유의미했던 사회적 위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으며($\beta = -.017$, n.s.), 공격성($\beta = .147$, $p < .001$)만이 사이버불링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에서는 성별($\beta = -.282$, $p < .001$)의 효과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Adj R² = .091)이 Model 1(Adj R² = .01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위축의 효과가 공격성에 의해 완전히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 = 19.610, $p < .001$). 즉,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최종 판단된다.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bullying

	Model 3		
	B	S.E	t
Gender	-.282	.062	-4.555***
Age	.016	.115	.141
Residential area	-.003	.024	-.109
Mother's level of education	-.039	.076	-.517
Father's level of education	-.025	.076	-.330
Parent's marital status	.185	.143	1.296
Economic status	.036	.050	.716
Social withdrawal	.017	.014	-1.171
Aggression	.147	.018	8.335***
Adj R ²	.91		
R ²	.96		
F	19.610***		

* $p < .05$, ** $p < .01$, *** $p < .001$

4.4 부트스트래핑 검증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48(Boot SE = .0071)으로, 95% 신뢰구간 [.0306, .0601]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반면, 직접효과는 -.0167(Boot SE = .0143)으로, 95% 신뢰구간 [-.0447, .0113]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과는 .0282(Boot SE = .0135)로 유의미하였으며[.0017, .0546], 이는 매개변수를 통제하기 전 독립변수의 총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이 공격성을 통해 완전히 매개됨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강건함을 보여준다.

<Table 9> Bootstrapping verification

Social withdrawal → Aggression → Cyber-bullying							
Total Effect (Direct + Indirect)							
Effect	SE	LLCI	ULCI				
.0282	.0135	.0017	.0546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ffect	SE	LLCI	ULCI	Effect	SE	LLCI	ULCI
-.0167	.0143	-.0447	.0113	.0448	.0071	.0320	.06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경로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중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이 전체의 56.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위축의 위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를 한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는 전체의 15.7%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이후 생애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배경의 니트족(NEET)의 비율이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입에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기 대응 요구된다.

둘째, 다중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공격성은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기 보다, 위축으로 인한 공격성향이 발현되었을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게 사회적 위축이 발생하더라도,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이 개입된다면 사이버불링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지 않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사이버불링 간의 완전 매개 관계를 검증하고, 사물인터넷 시대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의 요인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 점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횡단연구로 진행되어 변수 간의 시계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결혼이주배경부모나 중도입국과 같이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 대상으로 지정한 점에 한계를 가진다.

REFERENCES

- [1]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24 Basic Education Statistics". Press release, 2024.08. 2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 [2] H.S.Cha, "Longitudinal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Withdrawal, and National Identity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8, No.10, pp.489-523, 2021.
- [3] J. Phillimore, "Refugees, acculturation strategies, stress and integr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40, No3, pp.575-593, 2011.
- [4] K.H.Bae and S.C.Lee, "A Study on Personality, Friend, Parent, and School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No7, pp.219-246, 2014.
- [5] H.Lin, A.W.Harrist, J.E.Lansford, G.S.Pettit, J.E.Bates, and Dodge, K. A.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arental knowledge across seven years: A developmental cascade mode," Journal of Adolescence, Vol.81, pp.124-134, 2020.
- [6] B.S.Park, S.W.Bae, K.J.Park, M.K.Seo and H.J.im,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7, No.2, pp.72-10, 2017.
- [7] S.H.Cho and S.Y.Park,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Adolescent's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22, No.3, pp. 229-251, 2020.
- [8] S.O.Park and S.O.Yoo,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and Social Adjustment Ability of Elementary," Student Life Study, Vol.12, pp.110-132, 2003.
- [9] Y.S.Yang, S.M.Kim, and T.H.Lee, "The effect of strain on juvenile delinquency: With a focus on emotional disturba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30, No.2, pp.5-31, 2019.
- [10] I.Y.Jeong, "The Influence of Attachment with Peer on the Mobile Phone Addiction of an University Student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6, No.2, pp. 77-105, 2019.
- [11] B.ESeo, " The Factors Affecting Cyber Delinquency among Korean Youth: Focus on School Level Differenc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5, No.1, pp.77-99, 2017.
- [12] J.S.Choi and H.S.Jang, "The Effect of Alienation in Peer Relationship on Cyber Delinquency through the General Strain Theory and Opportunity Theory,"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Vol.11, No.3 .pp. 3-17, 2017.
- [13] H.J.Kim and E.J.Kim, "A Study on Parenting Attitude and Cyber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of Adolescents ,"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6, No.1 .pp. 69-89, 2023.
- [14] Y.J.Yu and J.S.Jun, "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Cyber Delinquenc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22, No.2,

- pp.425-446, 2021.
- [15] S.Y.Lee, T.H.Lee, and Y.S.Han,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50, pp.27-53, 2015.
- [16] K.H.Rubin and R.J. Coplan,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Vol50, No.4, pp.506-534, 2004.
- [17] I.J.Jeong,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Abuse to Peer Reje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4, pp.79-95, 2008.
- [18] B.J.Lee, W.H.Min and J.E.Kim, "A Study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 An Exploratory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al-Contextualism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8, pp.317-346, 2014.
- [19] R.J.Coplan and K.H. Rubin,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childhood: History, theories, definitions, and assessments," In K. H. Rubin & R. J. Coplan (Eds.),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 3-20, New York: Guilford Press. 2010.
- [20] K.Rubin, J.Bowker and A.Kennedy, "Avoiding and withdrawing from the peer group,"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303-321, Hoboken, New York: Guilford Press. 2009.
- [21] Y.H.Ko and S.K.Park,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Korean Society -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 -,"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Vol.15, pp.29-55, 2023.
- [22] R.Agnew,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30, No.1, pp.47-88, 1992.
DOI: <https://doi.org/10.1111/j.1745-9125.1992.tb01093.x>
- [23] S.S.Lee and S.H.Jeon, "The Buffering Factors in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University Students' Cybercrime,"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pp.45-62, 2022.
- [24] B.Delgado, R.Escortell, M.C.Martínez-Monteagudo, A.Ferrández-Ferrer and R. Sanmartín, "Cyberbullying, self-concept and academic goals in childhood,"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ol.22, no.46, 2019.
- [25] B.S.Kim, W.S.Lee and S.S.Lim, "Information Culture Issue Report No. 13-01. Understanding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bully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 [26] E.J. Nam and H.B.Bae. "Effects of Adolescent Depression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6, pp.353-375, 2019.
- [27] A.Barimani, F.S.Sina, K.Niaz-Azari and F.K.Makerani, "Comparing and examining the amount of aggression between the athletic and non-athletic students,"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Vol.6, no.4, pp.460-463, 2009.
- [28] L.Berkowitz, "Pain and aggression: Some findings and implic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Vol.17, No.3, pp.277-293, 1993.
- [29] S.M.Kim and Y.I.Cho, "The Effect of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on Aggression: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23, No.5, pp.169-198, 2024.
- [30] H.W.Kim and H.A.Kang,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among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on aggression: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relationship with caregivers,"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20, No.1, pp.67-88, 2022.
- [31] N.A.Fox and S.D.Calkins, "Pathways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teractions among temperament, attachment, and regulation" In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81-100, Psychology Press, 2013.
- [32] D.K.Kim, J.H.Song and Y.J.Kim,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Cyber Delinquency in Early Adolescents: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9, No.4, pp.157-178, 2022.
DOI: <https://doi.org/10.20496/cpew.2022.9.4.157>
- [33] M.S.Paek and S.J.C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Cyberbullying among Early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al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3, pp.199-224, 2017.
- [34] D.I.Jeon, S.K.Wi, J.B.Choi and B.W.Oh, "The Factors Affecting Cyber Delinquency among Korean Youth" *Social Welfare Review*, Vol.13, pp.149-170, 2008.
- [35] H.S.Ha, J.W.Lee, E.J.Jeong, S.E.im, J.H.Han and B.H.Koo,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X: Business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tudy Report*, 1-344, 2018.
UCI I410-ECN-151-24-02-088999646
- [36] S.H.Lee, J.H.Kang and W.S.Lee, "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book*, pp.1-481, 2015.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TRKO201600001178&dbt=TRKO&rn=>
- [37] Kim, Min Kyeong. (2014). A Study of Adolescents' Personal-cultural, Parental and Family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2(3), 35-53.
- [38] S.H.Mo, "Influence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Friend

Factors,” Forum For Youth Culture, pp.67-93, 2018.

- [39] C.H.Lee, N.M.Shin and E.B.Ha. “A Study on the Situa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Measures to Prevent I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pp. 1-268, 2014.
UCI I410-ECN-151-24-02-089084984
- [40] H.Kang and E.K.Ba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62, 131-164, 2018.
- [41] P.E.Shrouf and N.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4, pp.422. 2002.
- [42]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Press release, 2022.08. 29.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29

최 장 원(Jang-Won Choi) [증신회원]



- 2005년 2월 : Georgia College& State University MBA 졸업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4월 : 덕인복지재단 대표 이사
- 2010년 9월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4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2022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장 대 연(Daeyeon Jang) [정회원]



-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사회복지학 학사
- 2017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23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20년 3월 ~ 2022년 2월 : 한국여성재단 미래포럼 사무국장
- 2024년 3월 ~ 현재 :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학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저출산, 사회복지상담, 비영리조직 행정

서 동 현(Donghyun Seo) [정회원]



- 2025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25년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청소년복지